

名士기권하는 인권익척



제3의 물결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이 미쳤다! 고 외치고, 서재의 평론가는 머지 않아 다가를 파멸의 징후들을 열거한다.

그러나 비관론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에너지 패턴의 변화, 새로운 가정생활의 유형, 생산수단의 진화와 자조운동 및 그밖에 여러 가지 새로운 관계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갑작스레 현대의 막대한 우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조건들이 동시에 매력적이고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제3의 물결>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늘의 파괴와 부패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한다. 인간의 예지에 약간의 행운만 주어진다던 위기에 직면한 문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온전하고 현명하며 확고한 문명으로 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양질인 민주적인 문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필자는 이 책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나운 파도가 엄습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기괴하고 색다른 물결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거리의 현자는 '세상

농협 임직원 정읍시 폭설피해복구 同參

비닐하우스 6천평 정리·복구 및 성금 100만원 전달



지난 11일 포천시 관내 농협 8개사무소 임직원 40명이 전북 정읍시 신대인읍 백산리 김중섭씨 농가에 비닐하우스 30동 6천평을 정리·복구했고, 폭설피해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적인 폭설로 전북 정읍시의 피해액이 150농가 약 89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포천시 농협 임직원들의 폭설피해복구 농촌일손돕기 열기가 뜨겁다.

지난 11일 포천시 관내 농협 8개 사무소 임직원 40명이 전북 정읍시 신대인읍 백산리 김중섭씨 농가에 비닐하우스 30동 6천평을 정

리·복구했고, 폭설피해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포천시 관내 농협임직원들은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 쇠파이프절단기, 전기드릴 등을 준비하였고, 새벽4시에 현지로 출발해 오전 9시부터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 황성택지부장은 "현지농가에 일체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데 이번 폭설피해복구 봉사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실의에 빠져 복구의 의지마저 잃고 있던 피해농가들은 "먼길을 마다 않고 새벽길을 달려 아침부터 복구활동을 펼쳐 준 포천시 관내 농협임직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事必歸正 이라지만...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중국무협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내공이라는 말이 있다. 내공이란 안으로 쌓인 공력을 말한다. 일종의 무술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우리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지만 그 뜻은 수양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내공이 깊다'는 말은 '수양이 깊다'라는 말로 쓰인다.

이 수양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인내, 또는 참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감, 믿음을 뜻한다. 즉 수양은 자신감과 믿음에서 오는 진실의 힘을 말한다. 사람은 어떤 일에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자체로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배신이 판을 치고 말 바꾸기가

판을 치고 있다. 내공이 약해서이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물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닌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얽힌 제이 제삼의 사람들을 조차 한쪽 편에만 서서 진실성을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한다. 물론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거짓일 때는 다시 정(正)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은 간판용 손해이다. 아니 몇 곱절로 손해일 수도 있다. 진실이라는 것을 부러뜨기 전에 먼저 나의 진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살펴 볼 일이다. 배신이 판을 치고 말 바꾸기가 필자연락처 031-542-0032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루게 하소서”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노수우 목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 및 관계자와 내빈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감리교회에서 2006년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예배와 기관장 소개 및 인사 등 순서로 진행됐는데, 1부 예배는 권혁주 목사의 사회로 노수우 목사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제로 한 설교 ▶윤용기 목사의 포천시 복음화와 교회부흥 ▶이태성 목사의 포천시 지역발전과 기관장 ▶임옥재 목사의 나

라와 민족복을 위한 특별기도 및 찬송으로 치러졌다. 2부 행사는 내빈으로 참석한 고조흥 포천·연천 국회의원, 박윤국 포천시장 등의 축사 및 인사, 점심식사 및 교제, 축사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노수우 목사는 설교에서 "타인이 대하는 내 모습보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더욱 중요하며, 그 보다는 하나님은 보는 내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을 대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포천감리교회에서 2006년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창길잡이의 집이 개소 1周年을 맞았어요”

개소 1周年 기념식 및 아람잔치 개최

창길잡이의 집(대표 김성진·시설장 안나나)은 지난 14일 오후2시부터 소흘읍 소흘읍사무소 내 솔로무문화원에서 개소1주년 기념식 및 아람잔치를 개최했다.

창길잡이의 집 개소1주년을 기념하고, 창길잡이의 집에 입소한 아동들의 장기를 선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재 소흘읍장, 김창언 노아의 집 원장, 남명구 남사람재활원 원장, 박재훈 포천시장애인연합회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아람잔치로 진행됐는데, 1부 기념식에서는 내빈소개와 김성진 대표의 인사말, 박윤국 포천시장의 축사, 창길잡이의 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나나 시설장의 2005년 사업결과 및 2006년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아람잔치는 약 2시간 동안 댄스스포츠, 유치부 노래와 춤, 동지(연극), 독창, 수화, 포천교 열손가락 찬조출연, 태권무, 유치부 찬양, 우리병원 봉사팀 찬조출연, 블루스, 율동기, 합창 등 공연이 펼쳐



창길잡이의 집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소흘읍 소흘읍사무소 내 솔로무문화원에서 개소1주년 기념식 및 아람잔치를 개최했다.

졌다.

이날 행사 중 위촉된 창길잡이의 집 시설 운영위원회 ▶후원자 대표 문은주(좋은 가정만들기 연구소), 한승연(조양건설 대표), 고재종(환도약국 대표), 조일진(SBS방송국 PD) ▶지역주민대표 방인혁(소흘농협 상임이사), 박성진(인성산업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이재섭(이동현 父) 이다.

한편 김성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창길잡이의 집을 아껴주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일익을 보탬"이라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설 지방물가 안정대책’ 적극 推進

개인서비스·농축산물 등 23개 중점관리 대상품목 지정

설 명절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산물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포천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까지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목욕료, 이·미용료, 세탁료, 식당에서 판매되는 삼겹살과 갈비탕, 불고기 등 7개 개인서비스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사과 등 16개 농축수산물품목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했다.

포천시는 지역경제부서 공무원과 자원봉사 물가모니터 요원 등으로

'설 명절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과 사재기, 계량위반, 섞어팔기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또 부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사례가 없도록 현장중심의 지도와 점검을 펼친다.

포천시는 아울러 성수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6년 선진 농·축산 구현의 해로

농축산물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인력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포천시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며 머무르고 싶은 선진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농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2006년 농·축산업 관련 본예산은 지난해 114억2천7백만 원보다 51%, 금액은 57억 9천 7백 만원 증가한 172억 2천 5백 만 원으로 편성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말 협약을 체결한 '학교급식용 고품질 포천쌀 공급사업'에 4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

는 등, 모두 96개 농축산업 관련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 포천시는 또 포천쌀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추곡수매제도 폐지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불안감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도 웰빙시대에 무엇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육류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축산물 위생상태 제고, 축산물 브랜드화 등을 통한 신뢰받는 축산 구현에 매진하기로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적십자의 사랑 실천하는 2006년 다짐

2005년 총회 및 신년조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포천지구협의회는 지난 17일 오후2시 포천시청 3층대강당에서 2005년 총회 및 신년조례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포천지구협의회(회장 연효숙)는 지난 17일 오후2시 포천시청 3층대강당에서 2005년 총회 및 신년조례를 개최했다.

2005년도 사업의 결산보고와 2006년도 사업 및 예산심의를 하

고 회원간 신년 조례를 통해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는 연효숙 포천지구 협의회장, 김정영 경기북부봉사관장 등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 칙 낭독, 봉사원 서약, 연효숙 회

장 인사, 감사보고 및 본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회의에 앞서 우수봉사자에 시상식이 실시되었는데,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상에 ▶윤석찬(가산면·농업)·지승용(포천시청 사회복지과)·김남현(선단동 사무장) 씨가 각각 우수봉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협의회회장은 이병래(은평나무봉사회)·박미라(영북봉사회) 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연효숙 회장은 각 봉사회 회장들을 직접 인사시키며 "지난해는 RCY 국토대장정 식사지원, 산정호수 국제조각 심포지움 등 많은 부문에서 포천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한해 보냈다"며 "새해에도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속에 더욱 발전하는 적십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역사회단체 정신장애인 돕기 눈길

장애인에게 운동화와 운동복 등 선물

포천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장애인 돕기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포천시 건축사협회(회장 한신건 건축사무소 김봉훈) 회원 15명은 10일, 포천시 보건소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여명의 정신장애

인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기증했다.

또 '한터'의 김광명 대표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때 수시로 간식을 제공하고, 지난 연말에는 운동복도 선물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속

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보건소는 지역내 정신장애인 97명의 치료와 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특히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일상생활기술, 사회기술, 레크리에이션, 미술, 원예, 문예요법 등으로 진행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과 이들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금현1리 얼음썰매장 무료개장

효사상 공유 동네사람 모두의 공간

포천시 가산면 금현1리 마을회관 앞에 얼음썰매장이 지난 8일 개장돼 지역주민은 물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얼음썰매장은 너베기청년회(회장 이창형)가 주관하고 금현1리 노인회(회장 이상덕)가 썰매를 만들어 주는 등 후원하여 마련됐다.

너베기 청년회 이창형 회장은 "얼음썰매장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너베기 청년회가 매년 축사대회를 실시하면서 동네 어른들께 합동세배를 드리며 이어져 온 경로효친사상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너베기청년회는 축사대회에 그치

지 않고 연말까지 대회를 개최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는 세뱃돈 대신 노트 등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효사상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 청년회가 지역에 전해져오는 아름다운 전통을 신세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신이 이번 축사대회와 얼음썰매 타기 등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얼음썰매장은 너베기청년회 이창형 회원이 돈을 제공하여 마련됐으며 너베기청년회가 주최하는 축사대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포천시 가산면 금현1리 마을회관 앞에 얼음썰매장이 지난 8일 개장돼 지역주민은 물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노인 쉼터 마련

대회산리 경로당준공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이장 홍순식)에 노인 여가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경로당이 준공됐다.

경로당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331㎡(10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66.61㎡(50.48평)이고,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갖춰졌다.

이날 준공식은 노인회장의 성안건설산업(주)의 이우창 씨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박윤국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 박경희 부의장의 축사, 내빈의 준공테이프절단,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엔 대회산리 89·7번지에 건축면적 331㎡(10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66.61㎡(50.48평)이고,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갖춰졌다.

공식은 2005년 9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공사비 2억1천900만원(국비70%, 도비30%)이 투입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면 대회산리는 지난 18일 박윤국 포천시장, 내빈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